



APEC/PECC KOREA NEWSLETTER



한국 APEC 연구 컨소시엄
한국태평양경제 협력위원회(KOPEC)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서울시 서초구 압곡동 300-4 (우. 137-747)

TEL : 3460-1024 FAX : 3460-1162 E-mail : synam@kiep.go.kr

● 발행인 : 李景奘 ● 편집인 : 南相烈

Vol. 9, No. 2, 2006년 6월

2006년도 APEC 제2차 고위관리회의(SOM II) 주요 논의결과

2006년 APEC 제2차 고위관리회의 주요 논의주제

- 통상장관 WTO DDA 별도성명
- 부산로드맵 이행
 - 부산로드맵 실행계획 프레임워크의 기본 골격 합의
- APEC 개혁
 - 고위관리회의 의장 소그룹(FOTC)의 금년도 개혁권고안 논의
- FTAs/RTAs 추가 모델조치 개발
 - 10개 분야의 모델조치 초안작성
 - 우리나라는 분쟁해결분야의 모델조치 초안 제출
- 지식재산권(IPR)
- 무역원활화
 - 무역원활화 실행계획(TFAP) 이행 최종점검 보고서 제출일정 승인
- 경제기술협력(ECOTECH)
- 인간안보
 - 대테러대책반 회의 결과보고서 및 긴급사태 대응 대책반과 에너지 실무그룹의 2006년도 작업계획을 승인

제 2차 APEC 고위관리회의(SOM II)가 2006년 5월 30-31일 베트남 호치민에서 SOM 의장(Le Cong Phung 베트남 외교부 제 1차관) 주재로 개최되어, 통상장관 WTO DDA 별도 성명, 부산로드맵 실행계획, APEC 개혁 등이 논의되었다. 다음은 금번 고위관리회의의 주요 이슈별 논의사항 및 합의사항을 정리한 것이다.

1. 통상장관 WTO DDA 별도성명

회원국들은 농업과 비농산물 시장접근 협상의 모델리티(NAMA modalities)가 4월말 합의 시한을 놓치고 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져 있는데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협상 진전을 위해 APEC 차원에서 짧고 간결하며 강력한 정치적 메시지를 전달해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 특히 일본은 APEC 회원국 전체 GDP의 60%를 차지하는 서비스 협상의 진전이 긴요한바 7월 31일이 제출 시한인 2차 수정 양허안은 상업적으로 의미 있는 양허안이 되어야 하며, 규범에서도 가시적인 성과가 도출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2. 부산로드맵 이행

고위관리회의 의장 소그룹(FOTC)이 5월 27일에 회담한 “부산로드맵 실행계획 프레임워크”에 대하여 우리나라, 중국, 베트남 등 다수 회원국이 부산로드맵상 주요 추진분야(부산 기업 의제, 다자무역체제 지원, 높은 수준의 RTAs/FTAs 추구, 이행문제를 포괄하고 있는 상기 안에 지지를 표명했다. 미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는 “부산 기업 의제”에 중점을 두고 세부 실행계획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회원국들은 의장 초안 내용 중 실행계획 프레임워크의 기본골격(목적, 원칙, 세부실행분야, 이행수단, 2006년 이행성과물, 개정검토)에 합의했으며, “부산기업의제” 및 “경제기술협력(ECOTECH)”에 우선순위를 두고 실행계획을 작성하기로 했다. 동 계획의 추진일정과 관련하여, 금년도 제 3차 무역·투자위원회(CTI)까지 관련 산하회의체 및 실무그룹의 검토 의견을 반영하여, 최종 고위관리회의(CSOM)에서 최종안 채택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3. APEC 개혁

고위관리회의 의장 소그룹(FOTC)의 금년도 개혁권고안을 논의하였다. 일본은 기존

합의된 개혁관련 합의사항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를 평가하는 매트릭스를 APEC사무국에서 개발할 것을 요청하고, 2007년 제 2차 ABAC 회의 계기에 SOM과 ABAC간 연계회의를 일본의 도쿄에서 개최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4. FTAs/RTAs 관련 추가 모델조치 개발

회원국들은 회기간 회원국별 개발 관심 분야 취합 및 10개 분야에서의 모델조치 초안 작성 등 관련 진전사항을 평가하고, 회기간 추진 일정과 관련하여 6월 말까지 회원국들의 초안에 대한 검토를 통하여 의견을 초안 작성국에게 통보하고, 초안 작성국은 7월말까지 동 의견을 반영한 2차 초안을 회람하기로 했다. 우리나라는 분쟁해결(dispute settlement) 분야의 모델조치 초안을 제출하고 이에 대한 논의에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5. 지식재산권(IPR)

회원국들은 우리나라, 미국, 일본, 홍콩이 회기간 공동제안한 “지재권에 대한 공공인식 증진” 가이드라인에 대한 검토 의견을 초안 작성국에 통보하고, 초안 작성국은 7월 말까지 동 의견을 반영한 2차 초안을 회람하기로 하였다. 아울러, 2005년에 각료 합의사항인 3개 가이드라인 이행과 관련하여, 일본은 동 가이드라인 이행 현황 점검 양식(template)을 개발, 작성하여 2006년 8월에 개최되는 지재권전문가그룹(IPEG)에 제출하기로 하였다.

6. 무역원활화

베트남이 제출한 “무역원활화 민관대화” 결과보고서 및 무역원활화 FOTC의 2006년도 “무역원활화 실행계획(TFAP) 이행 최종점검 보고서 제출일정”을 승인하였다. 또한 우리나라의 “통관단일창구(Single Window System)” 구축 및 “수출입 신고서 세관장 확인 대상품목 축소(4,810개에서 4,114개로)” 등을 통한 획기적 성과를 소개했다.

7. 경제기술협력(ECOTECH)

경제기술협력운영위원회(SCE) 의장이 보고한 2006년 SCE 작업계획, 실무그룹, SOM 특별작업반, 네트워크 TOR 검토 진전사항 및 ECOTECH 프레임워크 검토계획 등 5월 27일에 개최된 SCE의 주요결과를 승인하였다.

8. 인간안보

2006년도 제 2차 대테러대책반(CTTF) 회의 결과보고서 및 긴급사태대응 대책반(TFEP)과 에너지 실무그룹(EWG)의 2006년도 작업계획을 승인하였다. 대테러와 관련한 미합의 신규 제안 이니셔티브에 대해서는 CTTF를 중심으로 회기간 논의를 지속하고 동 결과를 SOM III에 보고하기로 합의했다.



최근행사

Meeting of Ministers Responsible for Trade -APEC 통상장관회의

(2006. 6. 1-2, 베트남 호치민)

2006년 APEC 통상장관회의가 6월 1-2일 김현중 통상교섭본부장 등 21개 APEC 회원국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Truong Dinh Tuyen 베트남 통상장관 주재로 개최되어, 무역·투자자유화 및 원활화, 안전하고 우호적인 기업환경 조성, 경제기술협력, 사회·경제적 격차 문제 등에 대해 논의하였다.

다음은 금번 통상장관회의의 주요 이슈별 논의사항 및 합의사항을 정리한 것이다.

1. 통상장관 WTO DDA 특별성명

APEC 통상장관들은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DDA 협상 진전을 위한 특별성명 채택을 통해 다자무역체제에 대한 강력한 지지의사를 표명했다. 특히 농업 및 비농산물 시장접근 협상의 모델리티(NAMA modalities)에서 시장접근 문제를 핵심으로 다루고, NAMA 관세감축 공식에서 두 개의 계수를 가진 단순 스위스공식을 지지한다는 합의를 도출함으로써 6월말까지 DDA 협상에서 농업과 NAMA 기본 모델리티에 합의한다는 현 작업계획을 진전시키는데 큰 기여를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러시아와 베트남의 WTO 가입협상의 진전을 환영하고, 금년 11월 APEC 정상회의시까지 합의에 도달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결의했다.

2. 무역·투자자유화 및 원활화(TILF)

2006년말 까지 거래비용 5% 감축을 위한 “무역원활화 실행계획(TFAP)” 이행 진전을 평가하고, 고위관리들에게 2010년까지 거래비용 추가 5% 감축을 위한 추진계획을 작성할 것을 지시하였다. 한편 투자환경 조성과 관련하여 역내 투자활성화 종합계획(Expanded Work Program)이 필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했다. 개별실행계획(IAP) 및 공동실행계획(CAP)이 부산로드맵 이행을 위한 유용한 수단임을 재확인하고, 수검 예정국인 호주, 일본, 대만, 홍콩의 개

별실행계획의 외부 공개를 승인하였다. 또한 2005년에 합의한 “APEC 위조 및 불법복제 방지구상(APEC Anti-Counterfeiting and Piracy Initiative)” 및 3개 모델가이드라인의 이행 진전을 평가하고, 고위관리들에게 금년에 “지재권에 대한 공공인식 증진” 및 “위조 및 불법복제품 통제 공급망 구축” 노력을 지속할 것을 지시했다.

3. 안전하고 우호적인 기업환경 조성

통상장관들은 2004년 산티아고 정상회의 이후 APEC의 반부패 및 투명성 활동의 진전을 평가하고, 베트남 주최 반부패 민간협력 워크숍(9월, 하노이)의 성공적인 개최를 기대했다.

2006년 5월 베트남 다낭에서 열린 APEC 조류 인플루엔자 관련 각료회의에서 “APEC 조류 및 대유행 인플루엔자 예방 및 대응 행동계획”이 채택된 것을 환영하고 조류 인플루엔자가 세계경제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응 태세를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회원국들은 역내교역 안전회의(STAR)의 권고사항을 포함한 안전한 교역 및 투자환경 조성을 위한 조치들을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4. 경제기술협력(ECOTECH)

작년 APEC 개혁 작업의 성과로 개편된 경제기술협력운영위원회(SCE)를 통해 APEC의 경제기술협력 활동이 보다 효율적으로 이루어져 무역·투자자유화 노력을 지원할 필요성이 있음을 지적하고, 이와 관련하여 2006년 작업계획 채택 및 실무그룹, SOM 특별작업반, 네트워크의 TOR 검토 진전, 경제기술협력 프레임워크 검토 추진 등 5월 26일의 SCE 회의 결과를 평가했다. 또한 경제위원회(EC)의 사회·경제적 격차 연구가 APEC의 보고르 목표 달성에 필요한 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이라고 평가하고, 금년 6월 28일-29일 서울에서 개최될 “APEC 사회·경제적 격차에 관한 심포지움”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회원국들의 적극적인 기여를 독려했다.

APEC Study Center Consortium Conference -APEC 연구센터 컨소시엄 회의

(2006. 5. 23-24. 베트남 호치민)

APEC 연구센터 컨소시엄 회의(ASCC)가 2006년 5월 23-24일 베트남 호치민에서 개최되어, 1)부산로드맵의 실행, 2)경제기술협력(ECOTECH)과 무역·투자 자유화 및 원활화(TILF)간의 조화, 3)APEC 지역에서의 안보, 4)부정부패 방지 및 거버넌스(Governance), 5)관광, 문화교류 및 공동체 의식의 증진, 6)인적자원개발(HRM)과 능력배양, 7)APEC개혁 등에 대해 논의했다. 다음은 금번 APEC 연구센터 컨소시엄 회의의 7개 세션에 대한 주요 발표내용 및 논의사항을 정리한 것이다.

1. 부산로드맵(Busan Roadmap) 실행

(Approaches to the implementation of the Busan Roadmap)
뉴질랜드 APEC 연구센터의 Robert Scollay 박사(Auckland 대학교 교수)는 부산로드맵의 다섯 가지 수행과제의 실행과 관련하여 이에 대한 회원국들의 자발적 이행이 의문시된다고 우려했다. 특히, 다자무역체제를 지지하는 WTO DDA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으며, 높은 수준의 FTAs/RTAs 달성도 잠재적인 어려움에 처해 있다고 말했다. 따라서 무역원활화를 위해서는 부산기업의제(Busan Business Agenda)가 좀 더 세부적으로 기술되어야 하며, 개별실행계획(IAP)과 공동실행계획(CAP)이 강화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2. 경제기술협력(ECOTECH)과 무역·투자 자유화 및 원활화(TILF)간의 조화

(Harmonization of ECOTECH and TILF for equitable development in the Asia-Pacific)

일본 APEC 연구센터의 Neantro Saavedra-Rivano 박사(Tsukuba 대학교 교수)는 APEC에서 무역·투자자유화는 경제기술협력보다 더 중요한 비중이 주어질 유인이 크며, 이는 협력보다 경쟁을 조장한다고 주장했다. 일반적으로 선진국들은 무역·투자자유화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개발도상국들은 경제기술협력을 더 원한다. 보고르 목표(1994) 전에는 이 두 가지 이슈가 균형을 이루었지만, 이후 무역·투자자유화가 더 주목을 받게 되었다고 지적하며, 보고르 목표를 달성하고 변화하는 세계경제환경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경제기술협력과 무역·투자자유화가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3. APEC 지역에서의 안보문제와 공동대응

(Emerging security issues in the APEC reign and the framework for collective actions)

에너지 안보 이니셔티브(ESI)가 서명되었던 2001년까지는 경제성장과 재생가능 에너지(NRE)가 APEC의 주요한 관심사였지만, 2004년 쓰나미(Tsunami)의 대재앙 이후 APEC은 인간안보와 재생가능 에너지(RE)에 대해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그러나 멕시코 APEC 연구센터의 Fernando Alfonso Rivas Mira 박사(Colima 대학교 교수)는 정치적인 관점의 차이로 인해 이 분야에 대한 협력이 크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평가하고, 안보와 에너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재생가능 에너지의 역할과 중요성에 대한 세미나를 제안했다. 또한 APEC 실무 그룹 차원에서의 세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4. 반부패 및 거버넌스

(Anti-corruption and Good Governance)

필리핀 APEC 연구센터의 Jenny D. Balboa 박사는 경제발전 정도에 상관없이 부정부패는 어느 국가에나 존재한다고 전제하고, 필리핀의 사례를 통해 부정부패가 그 나라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설명했다. 세계은행의 2001년 보고서에서 필리핀의 부정부패는 GNP의 3.8%의 손실을 초래하는 등 경제발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정부패를 나타내는 몇 가지 지표를 이용하여 부정부패가 필리핀의 성장잠재력도 위축시키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따라서 부정부패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측정 방법과 이를 감시하기 위한 독립적인 기구들이 만들어져야 하고, 무엇보다도 부정부패 방지전략을 실행하고 재강화 하기 위한 정치적 의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5. 관광, 문화교류 및 공동체 의식의 증진

(Tourism, Cultural Exchanges and the Promotion of Community Awareness)

역사적으로 오랜 기간 동안 아시아 및 오세아니아에서 미주대륙으로의 이주 등으로 인해 이들 사이에 많은 문화교류가 이루어져, 아시아·태평양 지역 내의 국가들은 관습 등에서 많은 유사점을 가지고 있다. 게다가 항공여행의 발달로 아시아와 아메리카의 여행도 크게 증가했다. 페루 APEC연구센터의 Manuel Otarola Bedoya 박사(Lima 대학교 교수)는 관광업의 빠른 성장은 일자리 창출 및 외화 획득에 기여하며, 인프라 구축에 대한 투자를 고무시킨다고

언급하고, 아시아·태평양 지역 공동의 고용면의 혜택과 성장을 가져오기 위해 ASC의 연례회의에서 이 문제가 논의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태국 APEC연구센터의 Somchai Ratanakomut 박사(Thammasat 대학교 교수)는 국가간 여행은 많은 이점을 가지고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전염병을 옮기는 등 건강에 위협적인 면이 있고, 또한 자연환경을 악화시키는 부의 외부효과(Negative Externalities)를 가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관광산업을 유지시키기 위해서는 1)사회통합, 2)사회안전망의 개발, 3)지역 문화유산의 존중, 4)문화교류, 5)공동체 의식의 증진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6. 인적자원개발과 능력 배양

(Human Resource Development and Capacity Building)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홍유수 박사는 한국의 사례를 통하여 인적자원 개발(HRD)의 중요성과 성공요소에 대해서 설명했다. 한국의 경제발전의 주요 성공요소로 교육과 HRD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 수출주도형 산업화전략 등을 꼽았다. 그러나 한국경제는 노령화, 출산율 하락 및 인적자원에 있어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 등 여러 가지 어려움과 도전에 직면해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인적자원 개발과 능력배양을 위해서는 다각적 차원의 접근이 필요하며, 제도적 개선을 위한 회원국들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7. APEC 개혁

(APEC Reform-Toward a Dynamic Community)

인도네시아 APEC 연구센터의 Hadi Soesastro 박사는 보고 르 목표가 2010년까지 달성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APEC은 회원국의 정부 및 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APEC에 대한 개혁의 요구가 증대되고 있으며, 이는 잘못 정의되고, 이행하기 어려운 무역자유화 목표 달성을 선언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따라서 APEC은 의제 중심의 절차와 메커니즘에 의한 개혁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베트남의 "Towards a Dynamic Community"와 "Action Plan"은 이러한 개혁과정에 지침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오스트리아 APEC연구센터의 Alan Oxley 박사(Monash 대학교 교수)는 APEC은 무역자유화에서 무역원활화 및 자유시장 기반의 성장을 만드는 것으로 목표를 수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APEC의 접근방식은 간접적이고 성장이 달성되지 않으면 다른 문제는 논의되기 힘들다는 것이다. 또한 무역자유화는 더 이상 지속적인 성장을 보장하지 않으며, 지속가능한 성장이 APEC의 새로운 핵심과제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새로운 목표가 회원국들의 경제를 자극할 것이며, 어떤 요소가 생산성에 기여하고 지속적인 성장에 필요한지를 점검할 수 있게 할 것이다.

향후행사

APEC Women's e-Biz Training 2006

(2006. 7. 3-8. 대한민국 서울)

연락처 : 이미영 연구원 / 숙명여대, 아태여성정보통신원

Tel : 710-9886 Fax : 710-9896

3rd ABAC Meeting

제 3차 기업인 자문위원회 회의

(2006. 8. 12-15. 필리핀 세부)

연락처 : 박철환 차장 / 전경련, 국제부

Tel : 3771-0310 Fax : 6234-5256

APEC Training Course on Korean Nuclear Power Technology

(2006. 8. 21-9. 16. 대한민국 부산)

연락처 : 주원석 사무관 / 산업자원부, 원자력산업팀

Tel : 2110-5482 Fax : 2110-5535

13th APEC Finance Minister's Meeting and Related Meetings

제 13차 재무장관회의 및 관련회의

(2006. 9. 4-8. 베트남 하노이)

연락처 : 장도환 사무관 / 재정경제부, 금융협력과

Tel : 2150-2551 Fax : 503-9272

Meeting of SCSC and Related Meeting 표준·적합 회의 및 관련회의

(2006. 9. 4-9, 베트남 다낭)

연락처 : 손용하 사무관 / 산업자원부, 표준품질팀
Tel : 2110-5195 Fax : 503-9488

APEC SOM III Meeting and Related Meetings 제 3차 고위관리회의 및 관련회의

(2006. 9. 6-17, 베트남 다낭 & 호이안)

연락처 : 김원태 외무관 / 외교통상부, 지역협력과
Tel : 2100-7657 Fax : 2100-7980

APEC관련 주요 약어

ABAC	APEC Business Advisory Council	MAG	Market Access Group
IAG	International Advisory Group	TFEP	Task Force on Emergency Preparedness
SC	Standing Committee	DDA	Doha Development Agenda
APEC	Asia Pacific Economic Cooperation	MRA	Mutual Recognition Arrangement
IAP	Individual Action Plan	TILF	Trade and Investment Liberalization and Facilitation
SCE	SOM Committee on ECOTECH	EC	Economic Committee
ASCC	APEC Study Center Consortium	PBEC	Pacific Basin Economic Council
IPEG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Experts Group	TP	Trade Promotion
SME	Small and Medium Enterprise	ECOTECH	Economic and Technical Cooperation
BAC	Budget and Administrative Committee	PECC	Pacific Economic Cooperation Council
IPR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TPT	Transportation
SOM	Senior Officials' Meeting	EDNET	Education Network
BMC	Budget and Management Committee	PEO	Pacific Economic Outlook
IST	Industrial Science & Technology	TWG	Tourism Working Group
SSOM	Special Senior Officials' Meeting	EWG	Energy Working Group
CAP	Collective Action Plan	PPP	Public Private Partnership
KIEP	Korea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 Policy	WG	Working Group
STAR	Secure Trade in the APEC Region	FTA	Free Trade Agreements
CTI	Committee on Trade & Investment	PTAs	Preferential Trading Agreements
KOPEC	Korea National Committee for Pacific Economic Cooperation	WTO	World Trade Organization
TEL	Telecommunications	HRDWG	Human Resource Development Working Group
CTTF	Counter Terrorism Task Force	RTAs	Regional Trade Agreements
		WTTC	World Travel & Tourism Council

최근행사

제28차 APEC 인적자원개발 실무그룹 (HRD WG) 회의

(2006. 5. 22-26, 베트남 호치민)

제28차 APEC 인적자원개발 실무그룹(HRD WG) 회의 및 교육네트워크(EDNET) 회의가 5월 22-26일 베트남 호치민에서 개최되었다. 2005년 6월 회의에 이어 개최된 금번 회의에서는 말레이시아가 제안한 '교육계획의 수단으로서의 평가과정에 대한 APEC 컨퍼런스: 교육 프로그램의 평가방법 우수 사례' 사업 등 다섯 개의 사업이 최종적으로 승인되었으며, 3개의 하위 네트워크회의를 통해 금년 10월 태국에서 열릴 예정인 인적자원개발(HRD) 장관회의의 주제를 '세계화와 인적자원개발 정책: 향후 방향'으로 선정하였다. 또한 '인적자원개발과 혁신'에 관한 주제토론 시간을 마련하여 회원국들의 자유로운 논의가 이루어졌다. 차기 의장 및 하위 교육네트워크 코디네이터(Coordinator) 선임과 관련하여, 현 인적자원개발 실무그룹(HRD WG) 의장인 Dr. Chira의 재임기간은 금년 12월까지로 확정되었으며, 차기 교육네트워크(EDNET) 코디네이터로 한국의 김영환 부산대학교 교수가 선임되기도 하였다. 차기 회의는 내년 호주에서 개최하기로 결정되었다.

교육네트워크(EDNET) 회의에서는 10월에 있을 인적자원개발(HRD) 장관회의와 관련하여 교육과 훈련 문제는 노동 및 인적자원개발 문제의 확장선임에 동의하고 교육네트워크(EDNET) 의제가 장관회의 의제에 반영될 수 있도록 힘쓰기로 합의했다. 이와 함께 각 의제별 진행상황 및 성과가 보고되었는데, 교육재단의 초기 사업 가운데 하나인 한국의 IACE(Institute of APEC Collaborative Education) 사업이 현재 11개국 150여명의 초중고 선생님들의 활발한 참여 속에 12개의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다고 보고되었다. 각 회원국의 교육부가 진행하고 있는 사업의 보고에서 한국은 '교수학습 과정의 ICT 사용'이라는 주제와 관련하여 'APEC 미래교육 컨소시엄' 및 'APEC e-러닝 트레이닝 센터' 등 두 가지 프로젝트를 발표하고 회원국들의 참여를 요청하였다.

교육재단은 지난 1년간의 성과로서 '소의 청소년들의 교육

기회 증진을 통한 정보격차 해소'를 주제로 90만불 규모의 6개 신규사업 채택 등 최근 활동에 대해 보고하고 회원국들 사이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교육재단은 6개 신규사업의 수혜 회원국과의 긴밀한 업무협조를 위해 해당 회원국의 교육네트워크(EDNET) 담당관들과 개별 협의회를 개최하여 신규사업에 대한 회원국들의 적극적인 참여 및 관심을 요청하고 나아가 교육재단의 향후 발전 방향에 대한 구체적인 현안들에 대해 상호 관심사를 논의하였다. APEC 교육재단은 이번 기회를 통해 APEC 내 교육 및 인간능력배양 협력에 있어 중요 수단으로서의 교육재단의 역할을 재차 강조하고 재단 활동에 대한 회원국 및 민간, 학계의 적극적인 참여와 지원을 요청하였다. 또한 회원국들의 적극적인 지지를 기반으로 향후 학술진흥금 지원 강화 및 APEC 사업과의 연계를 통해 APEC 내 교육 및 인간능력배양 협력의 중요 수단으로서의 역할을 더욱 확고히 하고 APEC 발전에 기여하고자 한다.

2005년 승인 6개 사업추진

2005년 11월 승인된 '소의 청소년들의 교육기회 증진을 통한 정보격차 해소'를 주제로 한 6개 신규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현재 대부분의 사업들이 재단과 계약을 이미 체결하였거나 계약 중에 있으며 본격적인 사업 진행에 접어들고 있다. 또한 2003년 승인된 소기업 및 영세기업의 정보통신기술 능력배양 증진을 위한 6개 사업의 경우, 현재 대부분의 사업들이 완료되었거나 마무리 단계에 있는데, 이 중 한국 아태여성정보통신센터(APWINC)의 사업, 태국의 Thammasat 대학의 태국 APEC연구센터의 사업, 캐나다/한국의 APEC IBIZ 사업, 그리고 호주의 APEC-VC 사업의 경우 최종보고서를 제출함으로써 완료 또는 평가절차를 밟고 있다. 이와 같은 교육재단의 2003년도 및 2005년도 승인 사업에 대한 진전사항은 9월 베트남에서 개최될 2006년 제3차 경제기술협력운영위원회 회의에서 보고될 예정이다.

연락처: APEC 교육재단 사무국
Tel: 576-7373/4 Fax: 576-5303
E-mail: secretariat@apecef.org

최근행사

2006년 제2차 PECC 태평양경제전망 전망 분과회의(PEO Forecasters Meeting) 2006- 2007

(2006. 3. 16-17. 일본 오사카)

2006-2007년 아·태지역 국가들의 경제 전망을 위한 2006년 제2차 PECC 태평양경제전망 전망분과회의(PEO Forecasters Meeting)가 3월 16-17일 일본 오사카에서 개최되었다. 한국 측 대표로 이항용 한국개발연구원(KDI) 부연구위원이 참석하여 각국 전문가들과 미국, 일본, 중국 등 지역 경제를 전망하고 유가상승과 중국 경제의 부상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의견을 나누었다.

미국 경제는 2006년 상반기에 4.4%의 성장세를 기록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멕시코만 지역의 재건 사업과 승용차 판매 호조, 국방비 지출의 회복에 기인한다. 하반기에는 모기지 이자율 상승에 기인한 주택건설의 둔화, 수출 증가세 둔화 등으로 성장세가 다소 완화되어 3.4%의 성장세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었으며, 2007년에는 재고 축적의 둔화로 인하여 2.6%로 성장률이 낮아질 것으로 예상되었다. 2006년 근원물가는 2005년과 같은 2.2%, 2007년에는 2.4% 상승할 것으로 전망되었다. 2004년 중반이후 계속된 인상으로 현재 4.5%인 미 연방기금금리(Federal Funds Rate)는 상반기에 두 차례 정도 추가적으로 인상된 후 5% 정도에서 유지될 것으로 예상되었다.

일본 경제는 내수 성장세가 다소 둔화되고 수출은 호조를 보일 것으로 기대되어 2006년은 2005년과 비슷한 2.8%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이나 이후 2007년 성장률은 1.6%로 크게 낮아질 것으로 전망되었다. 소비자물가는 2006년 0.1% 및 2007년 0.2% 상승하여 디플레이션에서 벗어날 가능성이 점쳐졌다. 그러나 제로금리정책은 한동안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었다.

중국 경제는 2005년 9.9% 성장한 것으로 추산되며 2006년에도 9.5%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보이나, 2007년에는 8.7%로 성장률이 다소 낮아질 것으로 예상되었다. 이와 같은 성장률은 고정투자가 2005년 23.7% 증가하였으며 2006년에도 18%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기인한다.

2006년 제1차 PECC 태평양경제전망 구조 분과회의(PEO Structure Specialists Meeting)

(2006. 3. 18-19. 일본 오사카)

2006년 연구주제인 '노령화와 경제 성장잠재력(Aging and Economic Growth Potentials)'에 관한 PECC 태평양경제전망 구조분과회의(PEO Specialists Meeting)가 3월 18-19일 일본 오사카에서 개최되었다. 한국 측 대표로 남상열 KOPEC 사무국장이 참석하여 각 회원국별 연구자료 초안에 대한 발표와 토론에 참여하였다.

남상열 사무국장은 한국의 노령화와 경제 성장잠재력에 대한 발표에서 한국의 고령화가 일본을 포함한 주요 선진국보다 더욱 빠르게 진전되고 있으며 향후에도 가속화 되어, 노동 및 고용문제, 생산성 증가 및 경제성장, 조세 및 정부재정, 사회정책 등 전 분야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하였다. 그는 발표에서 고령화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노동공급 규모의 확대를 위한 정책에 집중하기보다는 인적자원 개발을 통한 노동력의 질적 개선과 생산성 제고, 산업구조의 전환을 통한 노동의 투입구조 개선이 필요하며 대외교역의 확대를 통하여 주요 교역대상국과의 상호보완관계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하였다.

참석자들은 인구구조의 변화, 노령화가 경제에 미칠 잠재적 영향 및 정책적 시사점에 초점을 맞추어 연구를 진행시키기로 의견을 모으고 제2차 회의를 9월 중 개최하기로 하였다.

2006년도 PECC 상임위원회 및 관련회의

(2006. 4. 8-9. 베트남 하노이)

2006년 제1차 PECC 상임위원회 및 관련회의가 4월 8-9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개최되었다.

상임위원회에서는 2006년 PECC 프로젝트의 추진 방향이 중점적으로 논의되었으며, 2006년 중점 프로젝트(Signature

Project)로 아·태지역 주요 경제 현안에 대한 전문가들의 분석을 통해 역내 정책 수립에 기여하기 위한 저널(State of the Region Report) 발간과 APEC 및 아·태지역내 경제 및 안보협력 움직임에 관한 연구(Regional Institutional Architecture)가 채택되었다. 그밖에 승인된 9개의 프로젝트는 발의한 국가위원회가 중심이 되어 추진하기로 하였으며, 한국은 양수길 KOPEC 부회장이 공동연구책임자로서 뉴질랜드의 Robert Scollay 교수와 APEC 국가들 간의 자유무역협정을 통한 태평양지역 공동체 추진 방안에 대한 연구(Relating Preferential Trading Agreements (PTAs) Between APEC Economies to Progress towards a Pacific Community)를 추진하게 된다.

앞서 개최된 베트남 경제에 대한 라운드 테이블 회의에서는 H.E. Nguyen Dy Nien 베트남 외교부 장관이 참석하여 시장경제체제를 받아들이고 빠른 경제성장을 통하여 태평양 지역의 신흥 경제발전국으로 도약하고자 하는 베트남의 경제정책 및 노력을 소개하고 참석자들과 의견을 나누었다.

또한 2006년 PECC 중점 프로젝트 중 하나인 'Regional Institutional Architecture 세미나'가 이어 개최되어 아·태지역 내 새로운 협력의 움직임, 역내 경제협력체로서 APEC의 기능과 향후 개혁 방안, 북미에서의 아·태경제협력에 대한 움직임 등이 논의되었다.

PECC Pacific Food System Outlook 2006-2007 Annual Meeting

(2006. 5. 17-19. 싱가포르)

PECC 태평양식품체계전망(Pacific Food System Outlook) 회의가 5월 17-19일 싱가포르에서 개최되었다. '에너지비용 상승이 지역식량시스템에 미치는 영향(Rising Energy Costs: Consequences for the Regional Food System)'을 주제로 개최된 금번 연차회의에서 참석자들은 에너지 시장을 전망하고 유가가 식품부문에 미치는 영향과 바이오연료 관련 주요 이슈에 대하여 토론하였다.

국제유가는 중국, 인도 등 고성장 개발도상국의 수요 증가와 석유 생산 및 정제 능력의 한계로 인하여 향후 5년 정도는 현재와 같은 고유가 추세가 유지될 것으로 전망되었다. 식품부문에 있어 생산, 가공, 운송 등 직접적으로 사용되는 유류의 비용은 전체 수입의 3-5% 정도로 추정되었다. 선진국과 개발도상국간 에너지 이용 정도와 효율에 상당한 차이가 있으며, 선진국의 식품시스템은 유가상승에 비교적 탄력적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바이오연료가 총에너지 공급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적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국가에서 수입 연료를 대체하고 에너지 안보를 확보할 목적으로 정부가 보조와 지원을 하고 있으나 정부의 강제가 없다면 수송용 연료에 대한 수요 중 바이오연료가 차지하는 비중은 낙관적 시나리오 하에서도 10% 미만이 될 것으로 예측되었다.

금번 회의 결과는 11월에 개최될 APEC 각료회의에 배포될 예정이다.

향후행사

2006년도 제3차 ABAC Meeting

(2006. 8. 14-17. 필리핀 세부)

2006년 제2차 PECC 태평양경제전망 구조분과회의 (PEO Structure Specialist Meeting)

(2006. 9. 23-24. 일본 오사카)

최근행사

KOPEC 아·태전략포럼 제2차 회의

(2006. 5. 10. 서울 조선호텔)

한국태평양경제협력위원회는 '지역차원에서의 한·미 FTA의 의미(Significance of a Korea-U.S. FTA in the Regional Perspective)'를 주제로 제2차 아·태전략포럼을 지난 5월 10일 개최하였다.

Hugh Patrick 미국 콜롬비아대 비즈니스 스쿨 교수는 발제를 통해 한·미 FTA가 경제적 측면 뿐 아니라 정치적, 전략적 동맹을 강화하는데도 긍정적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한·미 FTA 협상에서 핵심 쟁점이 될 항목으로 농업시장 개방, 상계관세 및 반덤핑 등 수입규제조치 완화, 개성공단 생산품에 대한 한국산 인정 문제를 지적하였고, 특히 한국이 개성공단 이슈에 강경한 입장을 취한다면 협상타결을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물(Deal Breaker)이 될 것이라고 우려하였다.

참석자들은 한·미 FTA가 경제 및 외교, 안보 측면 모두에서 양국에 이익이 될 것이라는 데 동의하고, 개성 이슈를 비롯하여 농업, 서비스업 등 분야별 쟁점 사항 및 한·미 FTA가 지역경제에 미칠 영향에 대하여 심도깊은 논의를 나누었다. 개성 이슈는 경제적 이득이 크지 않은 정치논리인데 이로 인하여 다른 커다란 사안을 양보함으로써 경제적 실리를 잃는 사태를 우려하는 시각이 있었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개성 이슈에 대다수의 국민이 지지를 보내므로 한·미 FTA의 국내 비준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의견도 있었다. 농업은 현재 미국이 전면적 개방을 요구하고 있으나 쌀 시장 개방에 관련해서는 어느 정도 양보를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이라 예상되었고, 서비스 분야에서는

특히 선진금융시스템의 유입으로 인한 국내 기업의 어려움이 우려되었다. 또한 참석자들은 대외협상 못지않게 각 이익단체의 의견을 수렴하는 대내협상이 중요하다는데 의견을 같이 하였다. 금번 회의에는 Robert Fallon 한국외환은행 이사회 의장이 함께 참석하여 의견을 나누었다.

한·미 FTA 간담회

(2006. 5월 26-27. 평창 휘닉스파크)

한국태평양경제협력위원회는 한·미 FTA 1차 협상에 앞서 우리나라의 협상 방향과 전략 수립에 기여하기 위하여 한·미 FTA 간담회를 5월 26-27일 휘닉스파크에서 개최하였다. 동 간담회에는 재정부, 외교부, 국책 및 민간 연구원의 협상 담당자 및 관련 전문가들이 참석하여 대내외 협상 과정에서 예상되는 현안에 대해 분석하고 그에 대한 대책을 논의하였다.

참석자들은 한·미 FTA 협상에서 예상되는 주요 쟁점인 개성공단 이슈, 섬유 원산지 문제를 비롯하여 서비스업, 농업, 제조업 등 업종 및 세부 분야별 협상 주요 쟁점 및 국내정책상 대응 방안을 논의하였다. 또한 한·미 FTA의 국내 비준을 위해서는 여론 형성이 중요하므로 다양한 매체를 이용한 협상 단계별 홍보 전략이 마련되어야 함이 지적되었다. 참석자들은 한·미 FTA 반대 목소리가 높아지는 현실을 걱정하며, 왜곡된 정보를 불식시키고 대중을 설득하기 위해 찬성론자들도 한 목소리를 내야할 필요가 있음에 공감하였다.

동 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은 정리되어 1차 협상 직전 한·미 FTA 기획단에 전달되었다.

향후행사

한·미 FTA 전문가 토론회

(2006. 7월 11일. 조선호텔)

KOPEC 제19차 총회

(2006. 7월 25일. 신라호텔)

KOPEC 컨퍼런스

(2006. 9월 중. 장소미정)

▶ 회의 관련 문의사항이나 자료는 KOPEC 사무국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연락처: KOPEC 사무국

Tel: 02-3460-1240~3 Fax: 02-3460-1244

E-mail: kopecsec@kopec.or.kr

출판물



- ◆ APEC Workshop on Best Practices in Trade Policy for RTAs/FTAs, 2006
- ◆ APEC Outcomes and Outlook 2005/2006
- ◆ APEC at a Glance, 2005/2006
- ◆ Trade Facilitation Brochure, 2005/2006
- ◆ Networking Asia-Pacific : A Pathway to Common Prosperity, 2005
- ◆ A Mid-term Stocktake of Progress towards the Bogor Goals, 2005
- ◆ Patterns and Prospects on Technological Progress in APEC, 2005
- ◆ Impact of Oil Price on Trade in the APEC Region, 2005
- ◆ Follow up Study : Impact of APEC Investment, Liberalization and Facilitation, 2005
- ◆ 2005 Key APEC Documents(With Supplementary papers on CD-ROOM)
- ◆ Capacity Building for Trade Facilitation, 2005
- ◆ SCCP : Blueprint : Towards One Community, 2005
- ◆ 2005 APEC Economic Outlook
- ◆ APEC Energy Overview, 2005
- ◆ Quantitative Methods for Assessing the Effects of Non-Tariff Measures and Trade Facilitation, 2005
- ◆ 2004 Key APEC Documents(With Supplementary papers on CD-ROOM)
- ◆ Realising Innovation and Human Capital Potential in APEC, November 2004
- ◆ Trade Facilitation and Trade Liberalization : From Shanghai to Bogor, November 2004
- ◆ Bridging the Pacific:Coping with the Challengers of Globalization, 2004
- ◆ Harmony in Diversity : Archiving Balanced and Equitable Growth : Report to the APEC Economic Leaders, 2003
- ◆ Drivers of the New Economy in APEC, October 2003
- ◆ 2003 Key APEC Documents
- ◆ Sharing Development to Reinforce Global Security : Report to the APEC Economic Leaders, 2002
- ◆ Benefits of Trade and Investment Liberalization and Facilitation, 2002
- ◆ Application of E-commerce Strategies to Small and Medium Sized Tourism Enterprises in the APEC Reign, 2002
- ◆ The New APEC Economy : Innovations, Digital Divide and Policy, 2002
- ◆ 2002 Key APEC Documents
- ◆ APEC High level Meeting on Human Capacity Building, Selected Documents, 2001
- ◆ 2001 Key APEC Documents
- ◆ New Economy and APEC, 2001
- ◆ 2000 Key APEC Documents

APEC 발간물 구입을 원하시는 분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APEC 연구 컨소시엄 사무국
E-mail : synam@kiep.go.kr
Tel : 02-3460-1184
Fax : 02-3460-1162

APEC Secretariat
E-mail : info@mail.apecsec.org.sg
Tel : 65-276-1880
Fax : 65-276-1775



- ◆ The Evolution of PECC: The First 25 Years, 2005
- ◆ Towards a Pacific Community: Renewing the Commitment (proceedings of PECCXVI), 2005
- ◆ State of the Region, 2005

- Finance

- ◆ Developing Asia Bond Markets, Asian Pacific Press, 2004
- ◆ Internationalization of Financial Services in Asia-Pacific and the Western Hemisphere, 2004
- ◆ Finance Forum CD : Issues and Challenges for Regional Financial Cooperation in the Asia Pacific, 2004
- ◆ ISSUES@PECC 시리즈
 - Developing Bond Markets in the APEC Region: Need and Agenda for Public-Private Sector Partnership, 2004
 - Strengthening Domestic Financial Systems in APEC: PECC Scorecard Initiative for Tracking Progress in Improving Corporate Governance Practices in Banks, 2004
 - Strengthening Domestic Financial Systems in APEC: Recommendation of Launching an APEC Peer Review Process Assessing Progress on Domestic Reform, 2004
 - Strengthening the International Financial Architecture: an Interim Assessment and Challenges to APEC, 2004
 - Developing an Asian Bond Market: Rationale, Concerns, and Roadmap, 2004

- Trade

- ◆ Study on the Mutually Supportive Advancement of APEC's Trade Facilitation and Secure Trade Goals post September 11, 2005
- ◆ Perspectives on Services Regulatory Issues (e-publication), 2004
- ◆ Perspectives on the Services - Investment Nexus (e-publication), 2004

- Community Building

- ◆ Implementing the e-APEC Strategy, 2004

- Outlooks

- ◆ Pacific Food System Outlook 2005-2006: A Revolution in Food Retailing, 2005
- ◆ Pacific Economic Outlook 2005-06, 2005
- ◆ Pacific Economic Outlook 2004-05, 2004
- ◆ Pacific Food System Outlook 2004-2005: The Role of Transportation Infrastructure in a Seamless Food System, 2004

PECC, KOPECC 회의 관련 자료 및 발간물 구입을 원하시는 분은 아래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KOPECC 사무국
Tel: 02-3460-1243
Fax: 02-3460-1244
E-mail: kopecsec@kopec.or.kr

향후행사일정

DATES AND VENUES	APEC EVENTS	PECC EVENTS
July 2006		
3-8 Seoul, Korea	APEC Women' s e-Biz Training 2006	
August 2006		
12-15 Cebu, Philippines	3rd ABAC Meeting	
8, 21-9, 16 Busan, Korea	APEC Training Course on Korean Nuclear Power Technology	
September 2006		
4-8 Ha Noi, Viet Nam	13th APEC Finance Minister' s Meeting and Related Meetings	
4-9 Da Nang, Viet Nam	Meeting of SCSC and Related Meeting	
6-17 Da Nang and Hoi An, Viet Nam	APEC SOM III Meeting and Related Meetings	
23-24 Osaka, Japan		PEO Structure Specialists Meeting
25-29 Ha Noi, Viet Nam	13th APEC SME Ministerial Meeting and Related Meetings	

APEC HOME PAGE <http://www.apec.org>
KOPEC HOME PAGE <http://www.kopec.or.kr>
PECC HOME PAGE <http://www.pecc.org>
APEC 교육재단 HOME PAGE
 <http://www.apecf.org>
한국 APEC 연구센터 컨소시엄 HOME PAGE
 <http://apec.kiep.go.kr>